

## 더불어민주당 2022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위원회는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시대정신’ 주제로 제1차 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당 강령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7월 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 오늘 토론회는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노선, 시대정신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및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당 강령과 노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 토론회는 전준위 강령분과위원장 김성주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 강령분과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야당이 된 민주당의 지금까지를 돌아보고 총노선이 유효한지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회의 발제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장은주 영산대 교수가 맡았다.
  - 홍익표 의원은 “대전환의 시기 민주당의 선택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 홍 의원은 지금을 대전환의 시대로 규정하고 “대전환의 시기는 우리 사회와

민주당 모두에게 기존의 방식이나 단선적인 가치만으로는 더이상 대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고, 총선승리와 재집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민주당은 새로운 노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특히 홍 의원은 대전환의 시기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 정당, 대안정당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아야 하며, 셋째, 대중적 개혁정당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두 번째 발제자인 영산대 장은주 교수는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시민적 진보와 민주적 공화주의의 길”이라고 제시했다.
  - 장 교수는 민주당이 “민주적 시민사회의 정치적 기구라는 자기 이해를 갖고 거기서 솟아오르는 ‘힘없는 사람들의 힘’, 곧 ‘시민의 힘’(또는 ‘시민적 권력’)에 기대고 또 그것을 강화하는 데 헌신하는 민주적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또한 민주당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평등한 참여와 소통의 바탕 위에서 정치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지향, 곧 공동선을 숙고하여 구성”하고 “보편가능한 시민들의 열망과 지향을 따르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자로는 김영배·박성준·박주민·한정애 의원과 조영호 서강대 교수가 참여했다.
  - 강령분과위원회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회(7월 8일), 경제(7월 13일), 정치·외교안보(7월 14일) 등 분야별 토론회를 진행하여 당 강령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